



희망을 전하고 기쁨을 나누는 행복공동체

+ 원흥종합사회복지관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원흥종합사회복지관은 고양특례시에 있는 9개의 복지관 중 규모는 가장 작지만, 지역 주민들과 연대하는 힘은 어느 곳보다 강하다고 자부한다. 늘 지역 주민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원흥종합사회복지관 사람들을 만나봤다.



따뜻한 손길이 가장 필요할 때

원흥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은 2015년 문을 연 이래 지역 주민들의 소통 공간이자 이웃들의 행복과 기쁨, 그리고 슬픔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장소로 자리매김해왔다. 흥도동과 삼송2동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다양한 주민 모임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구심점 역할도 담당한다. 특히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위치한 만큼,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확산은 복지관의 이러한 노력에 제동을 걸기 충분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이 낮은 어르신이나 독거 어르신들은 고립과 단절의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회복지사들은 이러한 어르신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이전보다 더 열심히 현장을 뛰어다니며 고군분투했다고 천미숙 관장은 당시를 회상한다. "건강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은 도시락 서비스 등 방문 서비스를 연계해 안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도시락을 받은 어르신들은 '내가 살아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데 위로와 용기를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직접 소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눈빛과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함께하는 세상을 그리다

원흥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선은 지역 구석구석을 향해 있다. 기다리는 복지를 지양하고 주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복지관이 지향하는 길이다. 현장의 작은 목소리를 모아 커다란 울림으로 전하기 위해 복지사들은 머리를 맞댔다. 주민들과의 소통을 이어 나가기 위해 비대면 형식의 서비스를 늘렸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발맞춰 모임이나 축제 등을 적극적으로 기획·운영했다. 복지관의 이러한 따뜻한 손길에 주민들의 반응 역시 뜨거웠다. 연말이면 어려운 이웃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려온다. 함께 돕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 돕고 함께 힘을 모은다면 힘든 세상을 헤쳐 나가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원흥종합사회복지관 직원들.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불꽃은 작은 희망에서 시작된다.



천미숙 관장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적든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이것이 바로 연대의 힘을 느꼈습니다.



최진나 사회복지사

'꿈디자이너'라는 진로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해맑게 웃게 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때 제가 하는 일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주소 고양시 덕양구 삼원로 102(원흥동)
홈페이지 www.whsw.or.kr
문의 ☎ 031-964-9380~2